

## Translated Remarks by Son Myeong-hwa

Good afternoon.

안녕하세요.

My name is Son Myeong-hwa. My father, Sergeant Son Dong-sik, military service number K1123444, died as a South Korean POW in North Korea in 1984. As a South Korean POW's daughter, I escaped North Korea and came to South Korea in 2005 and brought the remains of my late father to South Korea in 2013 to fulfill his dying wish—but this came at the cost of sending my older brother, youngest sister and nephew to a political prison camp.

제 이름은 손명화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군번 K1123444 손동식 이등중사로 1984년 북한에서 국군포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국군포로의 딸로서 2005년 탈북해서 한국에 왔고 2013년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 유해를 한국에 모셔왔지만 그 대가로 오빠와 막내 동생, 조카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Because of this family history, I am now campaigning for the creation of a POW fact-finding commission,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ffice to address the POW issue, and a special medal for POWs in South Korea as the head of the Korean War POW Association.

저는 이러한 가족사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6.25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로서 국군포로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국군포로 문제 전담기구와 국군포로를 위한 특별 훈장 창설을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My father was born in Gimhae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in 1925. When the North Korean forces invaded in 1950, my father enlisted, and he was taken prisoner at the Battle of Hyeonri in 1951. In July 1953, an armistice agreement was reached and, according to the agreement, all prisoners of war were to be repatriated. But North Korea refused to repatriate at least 50,000 South Korean POWs. My father was one of them.

우리 아버지는 1925년 남해안 김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50년 북한군이 쳐들어오자 아버지는 입대하셨고, 1951년 현리 전투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전쟁포로는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소 5만 명의 국군포로 송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중 한 분이었습니다.

So my father was forever parted in his lifetime from his parents and siblings in South Korea. Most South Korean POWs were sent to the coal mines near the North Korea-China border. So I

too was born in 1962 in Musan County, the northernmost part of North Korea. We were constantly under watch and discriminated against in education, jobs, marriage, etc. Like our father, my siblings and I were assigned to work at coal mines.

그렇게 아버지는 남한의 부모형제와 영영 생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군포로는 북중 국경지대의 탄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1962년 북한 최북단 무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늘 감시받았고 교육, 직업, 혼인 등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저와 우리 남매들도 탄광에 배치되었습니다.

When he died after a lifetime of back-breaking labor at coal mines in 1984, he asked us to bury his remains in South Korea. We could not forget our father's last wish.

1984년 아버지는 평생 탄광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당신 유해를 남한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Since 1994, 80 POWs and 430 family members have risked their lives to escape North Korea and make their way to South Korea. There are many POWs like Han Man-taek and Jeong Sang-un and their families who were captured by the Chinese authorities and returned to North Korea. They were executed or sent to political prison camps.

1994년 이후, 국군포로 80명과 국군포로 가족 430여 명이 목숨을 건 탈북 끝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만택, 정상운 어르신처럼 중국 당국에 붙잡혀 북송된 국군포로와 국군포로 가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Fortunately, I successfully escaped to South Korea in 2005. In 2013, I was able to bring the remains of my father to South Korea for burial with the help of my remaining family in North Korea, 29 years after his death. In this manner, my father could reunite with his family in South Korea in the afterlife.

다행히 저는 2005년 탈북에 성공하여 한국에 왔습니다. 2013년 저는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9년만에 아버지 유해를 남한에 모시고 와 묻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사후 남한의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Bu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ent my older brother Choong-kwon, my youngest sister Young-keum, and my nephew Park Young-ho to political prison camps for helping bring my father's remains. I had to trade the family union for my father with the forced separation of family for my brother, sister, and nephew.

그러나 북한 당국은 아버지 유해를 모시는 것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 오빠 손충권, 막내 동생 손영금, 조카 박명호 3명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가족 결합과 우리 오빠, 동생, 조카의 가족 강제분리와 맞바뀌야 했던 것입니다.

Even now, among my father's two sons and four daughters, three, including me, are in South Korea while three, including the two sent to the political prison camp, remain in North Korea. Among the children of POWs, there is even a case where only half of the father's remains were brought to South Korea while the other half was left in North Korea.

지금도 우리 아버지의 2남 4녀 중 저를 포함한 3명은 한국에,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 2명을 포함한 3명은 북한에 남아있습니다. 국군포로 자녀 중에는 아버지 유해 중 절반만 한국으로 모셔오고 나머지 절반은 북한에 남겨진 사례도 있습니다.

Why does North Korea have to shatter our POW families like this?

왜 북한은 우리 국군포로 가족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야 하는 것입니까?

The UN General Assembly's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 adopted last December urged North Korea to immediately return all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and to allow permanent regular reunions and contact between separated families. It also expressed serious concern about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returned to North Korea and subjected to torture, sexual violence, or death penalty.

작년 12월 채택된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이 모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를 즉각 송환하고, 이산 가족 간의 상설 정기 상봉과 연락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북송되어 고문, 성폭력이나 사형에 처해지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Can't North Korea hear the voi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appeal to North Korea with the others gathered here: please stop tearing our families apart now.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 모여 계신 다른 분들과 북한에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을 그만 갈라놓아 주세요.